

모바일컴퓨팅! 태풍의 핵으로 등장

모바일컴퓨팅이 중요한 IT 솔루션으로 등장하면서 데이터베이스관리 시스템(DBMS)업체들이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서고 있다. 한국사이베이스, 한국오라클, 한국인포믹스, 한국IBM, 데이텍 등 DBMS업체들은 최근 보험영업, 자동차영업, POS 등 유통시장과 무선통신 시장을 타겟으로 활발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박민식 기자>

모바일컴퓨팅이란 흔히 우리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노트북 컴퓨터부터 핸드헬드PC(HPC), 팜탑, 개인휴대정보 단말기(PDA), 휴대폰 등의 장비를 가지고 사용자가 원격지의 대상과 정보를 교환하는 작업을 일컫는다. 특히 모바일컴퓨팅을 도입할 경우 최근들어 기업들이 서비스를 서두르고 있는 영업자동화(SFA), 홈뱅킹, 홈쇼핑, 웹지불과 같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IDC는 2000년 전세계 모바일컴퓨팅 시장이 약 27억85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가트너 그룹은 2001년까지 최소 전세계 6천만명 이상의 사용자가, 그리고 2001년에는 1억 800만명 이상의 사용자가 모바일컴퓨팅을 통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모바일컴퓨팅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영업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업체는 한국사이베이스로 윈도95를 운영체제로 하는 노트북PC용 DBMS인 '어댑티브서버 애니웨어(ASA)'와 윈도CE를 기반으로 하는 'HPC용 ASA', PDA용 DBMS인 '울트라라이트'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였다. 특히 어댑티브 서버 애니웨어 6.0은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베이스와의 호환을 위해 트랜잭트 SQL(Transact SQL)을 제공하며, 자바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한국사이베이스는 제품출시와 더불어 본사의 레이몬드 추 부사장이 최근 직접 내한, 모바일컴퓨팅을 3대 중점 공략분야로 발표하고, 이 시장에서 선두자리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윈도우CE 기반 핸드헬드PC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방문해 향후 모바일컴퓨팅 시장에서 양사의 협력관계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현재 한국사이베이스는 대한생명의 400여개 사업소에 어댑티브 서버 애니웨어를 공급했으며, 전국적으로 800여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의료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 메디다스와도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향후 함께 응용프로그램 개발할 협력을 모집,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오라클은 그동안 국내 모바일컴퓨팅시장이 미성숙 단계라고 보고 솔루션 영업을 사실상 하지 않았으나, 최근 본사에서 PDA 및 HPC용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라이트'를 개발한 것을 계기로 모바일컴퓨팅 솔루션을 국내에 적극 소개하고 있다.

오라클 라이트는 분산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의 내부에 포함, 오라클 7.3 이상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된다. 특히 객체형 및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동시에 지원하는 GUI 기반의 오라클 라이트 데이터베이스 매니저를 통해 통합적인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즉, 오라클 라이트와 오라클 모바일 에이전트라는 네트워킹 미들웨어를 묶어 모바일솔루션으로 제공하는 한편 모바일컴퓨팅 확산을 위해서는 많은 응용프로그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소프트텔리시스, 한국후지쯔 등 9개 업체를 모바일 솔루션 협력업체로 선정, 솔루션 공동개발에 착수했다.

특히 최근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셀룰러 및 PCS사업자에 데모시스템을 구축해주는 한편 다음달 초에는 대규모 모바일컴퓨팅 세미나도 개최, 시장을 선점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또한 국내 2개 휴대폰 사업자, 3개 PCS폰 사업자, TRS 사업자, 무선데이터 사업자, 그리고 위성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데모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한국인포믹스는 개인사용자용 제품인 '다이나믹서버(IDS/PE)'가 지난 7월에 선보인 데 이어 분산기능이 더욱 강화된 IDS/PE 신제품을 내년 초에 출시할 예정이고 PE의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리눅스 DB버전과 함께 브랜드 마케팅활동을 현재 추진 중이다.

또한 이와관련 이번달 첫 행사로 치뤄질 'IT '98 사용자 컨퍼런스'에서 모바일솔루션을 대대적으로 발표, 모바일컴퓨팅시장에 첫 도전장을 낼 계획이다. 또한 IT관련 서적에 CD부록으로 제공하고 네트워크환경이 열악한 전문대학에 제품을 기증하는 등 후발주자로서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작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국IBM은 엔터프라이즈 DB2서버와 DB2 클라이언트간의 완전한 양방향 데이터 리플리케이션을 제공, 기존 DB2 펄스널 에디션이 모바일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모든 기능을 그대로 제공할 방침이다.

그러나 IBM은 DB2를 초소형 장비들에 탑재할 계획이 없음을 확실히 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DSS브로드캐스트와 같은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적극 활용하고, DB2는 데이터 소스에 대한 관리만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브젝트스토어를 공급하는 데이터텍은 개인사

용자용 버전인 PSE프로를 통해 모바일 사용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특히 OODB의 장점을 활용해 객체와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할 경우에 보다 손쉽게 비주얼한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최근 리셀러 업체를 확충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영업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 MS가 퍼스널 SQL서버를, 클라우드스케이프가 JBMS 등의 제품을 내놓고 있다.

한편, 모바일 컴퓨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업체간 전략제휴도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오라클은 최근 쓰리콤과 손잡고 차세대 모바일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는 쓰리콤의 팜파일럿과 자사의 오라클 라이트를 결합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사이베이스 역시 쓰리콤과 전략제휴를 맺었다.

각 DBMS업체들은 이달부터 각사별로 모바일컴퓨팅과 관련된 DB 솔루션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준비하는 한편 응용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협력사

IDC는 2000년 전세계 모바일컴퓨팅 시장이 약 27억85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가트너 그룹은 2001년까지 최소 전세계 6천만명 이상의 사용자가, 그리고 2001년에는 1억80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모바일컴퓨팅을 통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발굴, 휴대형 정보기기 제조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도 적극 모색하는 등 본격적인 모바일솔루션 마케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국내 모바일DB 시장은 통신서비스업체들이 무선 데이터통신서비스와 같은 모바일컴퓨팅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예상보다 빨리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